



## 사설

## '외대 제2도약 선포의 날'을 맞아

오늘 5월 30(화)은 우리 외에에 있어서는 아주 깊은 날이다. 광주 외적인 노경관 하에서 정신적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나 우리 대학에 깊은 상처를 준다. 6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상처를 딛고 최우수 국책대학으로 우뚝선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로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11월 우리 대학이 서울대, 연세, 고대, 이대와 함께 최우수 국책대학으로 우뚝선 것은 언론과 보면 매우 대수로운 일이었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나마 걸고 그렇지 않다. 다른 대학들은 탈락된 지 1학년이 넘거나 그에 육박하여, 모든 면에서의 축복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반면 우리 대학은 역사가 그 정도로 못 미치는 42년째에 인원대비가 여러가지 면에서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산상위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대학이 40년전 창립로부터 선진적인 암묵으로 전진·평화·창조의 정신에 바탕하여 국제화·세계화를 일관되게 추구해 왔고, 배출한 학생들이 전진하여 한민족을 세계 속에 심는 큰 기여한 것을 국가 인정하는 때마다 기록이다.

최우수 국책대학의 선정이 가져온 1학년인 효과는 5년간의 국책사업 수행에 있어서 '불어어원'을 지원받았던 점이다. 그러나 보다 자목할 점은 그것이 선정이 가져온 눈에 보이지 않는 임명난 폴리스 효과이다. 우선 세부의 수수 대학에서 우리 학교를 보는 눈이 크게 달라졌고, 우리가 교류를 새로 맺거나 실질교류 확장이다. 실상하는 평생학이 대학교하고 있다. 같은 점은 최근 국책대학으로서 국내 사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례에서 우리 대학을 보는 눈이 크게 변한 것도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외에 주변인들, 즉 교수, 학생, 직원은 물론 이나라 외, 특히 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자긍심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묘묘 밤전에 대학 교수가 상승으로 있고, 폐백주의에 물들이 더운 과거와는 달리 평화로운 향기를 그대로 새겨 속의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신심이 한껏 고양되고 있다는 점이다.

5월 3일은 외대 제2의 도약을 선포하는 날이다. 동문들이 모여 외대의 증명을 걸고하는 날이다. 발전기금 모금운동을 새로이 선포하는 날이다. 우리 동문들이 21세기 새길을 향해 떠나는 날이다. 발전기금을 모으기 위해 자기 인신적인 결단을 내리는 날이다.

한편 발전기금은 기본적으로 국립과학중합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 국제자연과학 운용, 멀티미디어 외국어교양센터 운영, 교수의 연구활동 및 학생장학기금 등 쓰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학부생들의 교육환경 및 복지부분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전기금 모금은 두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차례는 매년 기금을 내는 동문이나 시민인사가 다수 나서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국책대학이 되기 전에는 예경과 대구기계, 지하철의 대표 등 세 계화에 있어서 외의 암호과 기자회를 인식한 시민인사들이 선도적으로 매년 기금을 내주었지만, 국책대학이 된 후에는 이제 동문들이 매년 기금을 내기 시작하였다. 얼마 전 김필규교수님이 24억원을 낸 것을 기록해보아 이 단위의 기금을 내는 동문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1년 한푼 하루도 쓸 수 없는 일인데 모교에 이런 큰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교사람의 뜨거운 열정이 아닐만 한 충동이다.

물론으로는, 그보다 더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인 일로써 출입한 동문 모두가 금액의 대과를 불문하고 모금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교가 없었던지 오늘의 자신이 있을 수 없었으며, 모교가 더욱 명문대학으로 발전해야만 자신의 위상과 비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5년의 동문을 배출하였다. 동문 중 한분의 1만 2000만원씩 내준다면 정부가 요구하는 매칭펀드 160억을 훨씬 넘는 20억이라는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조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교수·직원들, 학부 학생들과 유관인사들, 그리고 독자들도 가지 않고 앉을 것이다.

다른 최우수 국책대학을 기준으로는 동문들이 앞장서서 이런 친목을 넘는 발전 기금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 우리 역시 외대 발전의 이 결정적 계기를 놓칠 수 없다는 하늘은 스스로 듣는 자를 둔다. 행방을 진리를 되새기며 모금운동을 위해 혼연일체 매진할 때다.

## 축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의대인의 기상은 기대합니다.

200자 원고지 4~5쪽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시다.

원고미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이며, 서울·웅인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하이텔 OEDAE, 나누누리 외대학보)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사고가 예상된다

작년 말부터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측의 부자로 많은 부분에서 낡은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아직 이를 담당자 아닌 관리자와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수 있는 깊은 시간 동안 외래인은 침묵하고 말았다.

본교의 학생들은 누구나 한 번쯤 학교 건물의 계단이나 벽을 긁어보면서 그 시름을 풀려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바로 계단마다 부착된 '기록방지 방지' 틀이 많은 접촉으로 미모되어 일어나는 일이다.

신축한 건물을 제외한 본교의 미끄럼 방지 틀은 대부분 금속 재질의 빛깔부터의 힘인ade. 사람들의 발길이 오랫동안 달아서 신답수가 미모된 저녁 치과로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부분으로 미모된 저녁 치과로 새운 틀을 뒷면에 끌어올리면 그에 따라 부착된 '기록방지 방지' 틀은 접촉으로 미모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대동제라는 것을 단지 노는 문화로써 생각할 일반이 없지 않으나-우리 학교 대동제는 그런 것과는 않았다.

나는 대동제가 언제 시작하는 지도 몰랐다. 19(화) 오후에 붉은 포스터를 보고 알았으니까. '대동제'가 무엇인가? 외래인은 물론 타대학인들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야? 그런 면에서 대학 1학년 처음 맞는 대동제에 실망이 커졌다.

대동제 행사는 대부분이 '끼리끼리'의 일정이었다. 노현에서 진행된 각 단체 행사는 외래인 모두가 참가는 커녕 각 단체인들이자고 외연하는 경쟁으로 미끄럼 방지 틀을 끌어올리면서 하늘을 망설여졌다.

이번 대동제를 위해 많은 사람이 고생한 것은 알고 있지만 결과가 그들

만의 세상처럼 소수의 친목회 정도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행사를 연 상태로 친목회 턱에 걸려 앉거나 친구 혹은 서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친구인 평범적인 학생 키의 절반

에도 못 미친 높이로 손을 펼쳐으면서 조급한 부주의의 힘 속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학생회관 건물과 시당건물에 있어 두드러진다. 창을 날개 설계한 것은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는 목적이었지만, 학생 키의 절반

에도 못 미친 높이로 손을 펼쳐으면서 조급한 부주의의 힘 속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대동제가 모두 나쁘다

는 얘기는 아니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캠페인, 독립 영화제, 등장에 혁명화 같

이 대학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문화

등은 예술이다. 대부분의 행사(주제이나 소규모 기관대회)가 '북한 동포 모금'

을 위한 등을 내걸고 치러졌고, 노동 문

제나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87년 13대 대통령 선거

# 항쟁 성과 뒤엎은 '2백만표'의 실체

## 후보분열, 부정선거로 민주세력 패배

## 글 식느 순서

- 56년 대선
- 63년 대선
- 71년 대선
- 87년 대선
- 92년 대선
- 총괄 - 97년 대선 전망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민중은 60년 4월 혁명으로부터 80년 광주민중항쟁에 이어 계승된 민중행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거두되는 군부군 위함에 맞서 항쟁을 계속하면서 끝내 집권세력으로부터 6.29선언이라며 핵폭신한을 받아내왔다.

이후 6월항쟁의 소중한 경험으로 힘을 얻은 7.8월 노동자들의 대투쟁은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노동자가 가장 밀비밀에서부터 애입질서를 뛰어들며 우리 현대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6월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생활화해낸 우리에게 13대 대통령선거는 27년간 지속된 군사통치를 종식시키거나 못하느냐를 편가내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선거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선거사상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높았다.

반면 집권세력은 권력과 자본, 제도언론을 통한 막강한 선전, 물리적 폭력, 후보문제에 정신판단 제작력의 소홀한 대응, 정치일정 무관

을 두려워하는 보수아당의 의도적 외연으로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끝내 우리 사회의 보수적 지배세력을 총격하여 선거전에 들어갔다.

6월항쟁, 7.8월 노동자민중의 연속성 상에서 12.16선거를 바라볼 때 그것은 미조직되고 분산된 민중세력이 두류의 아당 정치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잘 조율된 보수지배세력에 맞선 대결의 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리인으로 나선 양 김씨는 자신의 한계로 노후보가 '민주화'를 외치며 한걸음이 '영장'으로 나새워 민중세력을 철저하게 저지 기반으로 디자지 못했으며 절도 차이는 있지만 주로 출신지역과 도시 중산층에 역점을 둔 선거전술을 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 정책과 시민정당을 표방했던 김대중과의 경우 민중후보로 나서 배기원씨에게 적재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투표와 관계없이 심장으로 백씨에게 동조한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12.16선거에 대처했던 재야 민주우운동권의 입장을 김대중씨 저지론, 독자적 민중후보론, 후보 단일화 추진론 세 가지로 대별된다. 당시 국민에게 세 가지 입장이 나온데로의 설득력있는 논리를 갖추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통합민중론은 문란한 역량에 기초하지 못한 전술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통령선거는 노후보의 당선으로는 허망한 결론을 떠고 끝이 났다. 민주화 기대에 진득 부풀어 국민들의 여론은 일부 허탈한 분위기 속에서 '아권'의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퇴'.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의 퇴' 등의 개탄과 분노로 마무리졌다.

결국 선거에서 아권후보의 분열이 민정당측에 유리하게 나타난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허망한 결과'의 주된인은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자선된 부정선거에 있었다.

드러난 부분적인 부정선거 사례만을 종합해봐도 민정당의 '백만표자 입승'의 실체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선거 활동 이전에 서기관 계 행정공무원들이 실심하게 공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재자 투표부정 최소한 10만표에서 1만 3천 6백여 개 투표소 하나님 백포식의 부정표만 가산해 2백만 표는 수월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노출된 은은 유권자의 무수한 부정선거 사례들-관공개임, 금품살포, 흑색선전, 팔리미 투표, 대리투표, 이중투표, 투표증지자장에서의 부정, 투표함 바꿔치기, 부재자 투표부정 등을

감안했을 때 '도둑맞은 민주양식'의 수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집권당의 계획적, 원천적 부정선거가 전국적지

에서 밭갈이면서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신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대표적

인 부정선거 규탄 시위로는 '구로구청 점거농성'이 있다.

## 학술부

〈1997년 12월 25일 밤 8시 특집호 발행 예약〉

## 87년 부정선거규탄시위 - 구로구청점거농성

## "가짜 대통령, 민주시민 우통마라"



구로동 시민들이 팔짱을 끊고 투표부정표를 사수하고 있다.

13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1987년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경 구로구청에서는 투표 하려온 구로 5, 6동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몽胧하게 치뤄지는 듯한 분위기를 빼고 까지자 정문앞에서 펼쳐진 청년이 품에 무엇이 실려있는지를 문자 경찰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쓰쓰지 말고 걸을 비켜라'고 유탄을 쏘았다. 서로 육신자위 하다 청년이 화물칸 비단을 벗기자 안에는 흥과 과자류가 가득 쓰여 있었다. 그러나 청년은 빙을 실은 차량이 무장경찰과 침경의 상임한 경호를 받는 것이 이상하다며 빙이 닦긴 박스를 엎으로 제쳤다.

그러자 푸른색의 투표함이 드러났다. 시민들은 무장경찰 6명이 뱀으로 위장한 차량을 호송한다는 점과 투표함 봉인 자물쇠에 안

이구라는 이름의 도장이 3개 착혀있는 점,

투표함 사각에 한자 참호지가 붙어되어 있지 않은 점, 봉고체에 인주와 복수경 1,500여매의 음지들이 진짜 실려있다는 점, 선거법상 투표함은 투표마감 이후에 호송한 점 등의 이유로 그것이 부정투표함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얼마 안되어 동작구 사당2동, 증평동, 보라매동, 증로구, 은평구, 영등포 등지에서도 더수의 시민들이 투표함 바꿔치기와 호송차량 둘번거부, 유령 투표방법 등으로 진경과 대치 중 죽행, 낙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시민들은 '선거무효, 독재 탄핵'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구로구내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며 부정선거 사례를 폭로했다.

다음날 구청입구에 1만여명의 인파가 열렸고 자녀 8시경 농성집행부가 '기리봉 1동 시장 앞에서 연탄봉사를 하던 허기수씨(38)

가 부정선거현장을 목격하고 병에 하여 분신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을 발표하자 시민들의 분노는 한껏 고조되어 '부정선거가 '부정경, 민주시민 우통마라' 등의 구호가 어기거나 뛰어나았다.

이날 집회는 도로공선 때 쓰이는 노란색 철제 간판이나 비리케이트가 쳐졌다. 45시간에 걸쳐 5명의 부정투표함을 자기며 선거무효 투표를 범했던 12인이 구로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구청장기동장을 18일 새벽 6시 30분부터 진행된 4선 5대여명의 폭력경찰의 공격으로 미친내 무너졌고 다수의 투신자와 당시 백화점과 흥복함으로 상당히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다수의 시망자들이 있었다는 시민제보와 목격자 증언이 있었다.

박노라 기자

〈1997년 12월 25일 밤 8시 특집호 중 발행 예약〉

92년 14대 대통령 선거

## '민주'를 가장한 '반민주'의 승리

90년 민주자유당의 출범(민정, 민주, 공화당의 3당합당)은 집권세력이 일국적인 권리 장악에 전략하였다.

결국 선거에서 아권후보의 분열이 민정당측에 유리하게 나타난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허망한 결과'의 주된인은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자선된 부정선거에 있었다.

드러난 부분적인 부정선거 사례만을 종합해봐도 민정당의 '백만표자 입승'의 실체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선거 활동 이전에 서기관 계 행정공무원들이 실심하게 공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재자 투표부정 최소한 10만표에서 1만 3천 6백여 개 투표소 하나님 백포식의 부정표 표만 가산해 2백만 표는 수월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노출된 은은 유권자의 무수한 부정선거 사례들-관공개임, 금품살포, 흑색선전, 팔리미 투표, 대리투표, 이중투표, 투표증지자장에서의 부정, 투표함 바꿔치기, 부재자 투표부정 등을

감안했을 때 '도둑맞은 민주양식'의 수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집권당의 계획적, 원천적 부정선거가 전국적지

에서 밭갈이면서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신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대표적

인 부정선거 규탄 시위로는 '구로구청 점거농성'이 있다.

여러 논의 끝에 치뤄진 92년 14대 대통령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국연합의 일부로 주시파가 있는데 김대중 후보는 어떤 주시파와 함께 나온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또한 12월 15일의 유세에서 김영삼 후보는 '민주당은 김일성 노선을 추구하는 전국연합과 손을 잡고 광양방문은 김영삼을 낙선시킨다'는 민주당 후보의 우세를 바탕으로 승리를 자신했다. 기본적으로 3당합당을 통해 호남 대 반호남 후보는 어떤 주시파와 함께 나온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또한 12월 15일의 유세에서 김영삼 후보는 '민주당은 김일성 노선을 추구하는 전국연합과 손을 잡고 광양방문은 김영삼을 낙선했다'고 시키려고 산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연합과의 정책연합을 분명히 끌어 국회의 의혹을 없애리'고 노골적으로 색깔논란에 불을 지폈다.

14대 대선의 최대특징은 지역감정의 강화였다. 김대중 후보는 지역감정의 대세를 경계해 호남 지역에서 신세계의 개혁'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골적으로 색깔논란에 불을 지폈다.

민자당의 낙관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어난 김대중 후보의 우세를 바탕으로 승리를 자신했다. 기본적으로 3당합당을 통해 호남 대 반호남 후보는 어떤 주시파와 함께 나온다며 공세를 강화해온다. 민주당은 전국연합과의 정책연합을 분명히 끌어 국회의 의혹을 없애리'고 노골적으로 색깔논란에 불을 지폈다.

14대 대선은 선거 전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김영삼 후보의 우세를 바탕으로 승리를 자신했다. 김영삼 후보는 지역감정의 대세를 경계해 호남 지역에서 신세계의 개혁'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골적으로 색깔논란에 불을 지폈다.

또한 이 대선은 87년의 '군사독재종식'과 같은 신속한 현대 수시제 선거구제를 통한 전국연합과의 정권교체가 대세였지만 87년 대선과 같은 지역감정이 대세였던 대립구도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아당지도자 출신의 양김이 선거에서 신속하게 결집해졌다.

민자당의 낙관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어난 김대중 후보의 우세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결국 광복에 있던 지역감정이 대세를 판가름했다. 20년 동안 군사독재정권과의 조건으로 반호남지역감정을 호남출신의 김영삼후보가 극복하기에는 늘 부족이었다. 경남, 북부가 결집된 지역감정의 극명한 노출과 김영삼 후보를 무력화하는데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한 이 대선은 87년의 '군사독재종식'과 같은 신속한 현대 수시제 선거구제를 통한 전국연합과의 정권교체가 대세였지만 87년 대선과 같은 지역감정이 대세였던 대립구도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아당지도자 출신의 양김이 선거에서 신속하게 결집해졌다.

이렇게 두몇몇 선거쟁점없이 지역감정이 대세를 판가름하고, 유권자는 안정심리가 작용한 14대 대선에서도 정권교체를 통한 전국민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파해는 다시 미루어지게 되었다.

김정희 기자



14대 대선은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가 깨이지며 뚜렷한 선거쟁점없이 지역감정이 대세를 판가름한 금권선거였다.



한국을 움직입니다  
세계를 움직입니다







반문화유산의 해  
-80년대 민중문화를 찾아

#### 4. 생활우리온

##### 들어가는 말

80년대 우리나라의 삶이 담겨있는 옷을 함께 입자는 풍토가 확산되었다. 그리고하여 요즘에는 각 직장노조는 물론이고 대학생들, 교회, 성당에서 점포옷을 입고 있는 사람마다 처음 더 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차운 우리에게 대한 찾음이 시원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부에서는 수입기반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미국 본토의 기업을 비롯한 로열티 브랜드가 물밀 듯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장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장이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비판적인 민족의 입거리는 어떤 관점에서 재경험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자.

##### 웃의 기능

처음에 웃은 체온유저들의 몸보현 기능을 했는데 시장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배자들의 사회체계 유지강화시키는 방편으로 웃음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즉, 신분에 따라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천, 윗모양, 색깔 등에 차등을 두었던 것이다. 웃의 기능은 원래 건강에 도움을 주고 활동하기

에 편리하게 보기에 좋아야 한다. 입는 시장의 개성, 입자의 삶의 내용이 표현되며 있다.

그런데 현재의 일자리 문화는 현 통치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 하면서 이러한 본연의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 그 왜곡된 상황을 크게 세기지도 살펴볼 수가 있다.

## 입거리는 '개성'이 아니라 '사상'이다

### 생산·유통 전과정을 대중과 함께



고장의 풍물  
남성복의 대중화  
여성복의 대중화  
제작방법

을 치자는데 그 양태를 알아보자.

#### 인거리 문화의 엄청난 파급력

먼저, 경제적 예술의 심화를 불러 일으킨다. 합성유수의 자금들은 25%로 불과하고 면은 100%수익되고 있는 실정에서 보여지듯이, 이러한 원료의 예술은 편안으로 디자인기업의 예산을 실현시킨다. 그로인해 점점 더 중소기업은 하청업체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디자인은 성형과 환경의 파괴를 일으킨다. 이러한 갈등은 입거리를 유독한 아동처럼 힘으로도 두렵고 몸에 꽉 깨이기 때문에 통증이 인해 범을 유발한다고 한다. 세제로 정신적 흡연에 과당 확대된다니 점을 들수 있다. 입은 웃의 기능에 따라 사람의 기억을 막기 위한 물질 중심적 사고와 일상화 초래하게 된다. 또한 그것은 편안으로 소비 형태 주인이 되어 개성을 강조하며 개인주의와 경쟁하는 외국의 디자인기업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걸려온 입거리를 조장하는가, 가슴, 엉덩이를 강조해 성기능을 복우우는 형태로 만들고 있다. 입제가 폐쇄문화를 조장하는가, 이는 물론 사회, 국가적으로 나쁜 영향

것과 마찬가지로 우민화로서 한류 하계화에 나

아이 끌임없이 소비로 독점개발과 상표권을 갖고 있는 외국의 디자인기업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거리를 조장하는가, 가슴, 엉덩이를 강조해 성기능을 복우우는 형태로 만들고 있다. 입제가 폐쇄문화를 조장하는가, 이는 물론 사회, 국가적으로 나쁜 영향

것이다.

#### 우리옷 입기 운동

입자리 문화에 대한 위와 같은 자각으로 '우

리웃입기운동'이 꽤 오래 실시해 오고 있다. 70년대 말 출판운동에서 실현한 민족문화의 각 부분에 대해서도 민족적인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 대학문화운동파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생활속에서부터 실현하는 문화운동의 꿈을 알기 위해 시작하면서 생활속에서부터 실현하는 문화운동의 꿈을 알기 위해 시작하면서 생활속에서부터 실현하는 문화운동의 꿈을 알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스스로 만들고 입는 옷을 통해 친구하는 행위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물론 성형과 환경의 파괴를 일으킨다. 이러한 갈등은 입거리를 유독한 아동처럼 힘으로도 두렵고 몸에 꽉 깨이기 때문에 통증이 인해 범을 유발한다고 한다. 세제로 정신적 흡연에 과당 확대된다니 점을 들수 있다. 입은 웃의 기능에 따라 사람의 기억을 막기 위한 물질 중심적 사고와 일상화 초래하게 된다. 또한 그것은 편안으로 소비 형태 주인이 되어 개성을 강조하며 개인주의와 경쟁하는 외국의 디자인기업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걸려온 입거리를 조장하는가, 가슴, 엉덩이를 강조해 성기능을 복우우는 형태로 만들고 있다. 입제가 폐쇄문화를 조장하는가, 이는 물론 사회, 국가적으로 나쁜 영향

것과 마찬가지로 우민화로서 한류 하계화에 나

아이 끌임없이 소비로 독점개발과 상표권을 갖고 있는 외국의 디자인기업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거리를 조장하는가, 가슴, 엉덩이를 강조해 성기능을 복우우는 형태로 만들고 있다. 입제가 폐쇄문화를 조장하는가, 이는 물론 사회, 국가적으로 나쁜 영향

것이다.

#### 이 기연

(민족생활문화연구소 소장)

#### 97 외대문화 시화전

자기 마음대로 안되는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뜻을 가진 문구. "당신을 배신하는 세상/세상을 배신하는 시오이자오/시가 당신을 배신한 테"를 내걸고 외대문화에서는 시화전을 갖는다. 이는 전시회는 오는 29일(목)부터 6월 1일(일)까지 고현전시관에서 경기 백화점과 갖는다. 이번 시화전에서는 문화문화의 꿈을 알기 위해 시작하면서 생활속에서부터 실현하는 문화운동의 꿈을 알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스스로 만들고 입는 옷을 통해 친구하는 행위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물론 성형과 환경의 파괴를 일으킨다. 이러한 갈등은 입거리를 유독한 아동처럼 힘으로도 두렵고 몸에 꽉 깨이기 때문에 통증이 인해 범을 유발한다고 한다. 세제로 정신적 흡연에 과당 확대된다니 점을 들수 있다. 입은 웃의 기능에 따라 사람의 기억을 막기 위한 물질 중심적 사고와 일상화 초래하게 된다. 또한 그것은 편안으로 소비 형태 주인이 되어 개성을 강조하며 개인주의와 경쟁하는 외국의 디자인기업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걸려온 입거리를 조장하는가, 가슴, 엉덩이를 강조해 성기능을 복우우는 형태로 만들고 있다. 입제가 폐쇄문화를 조장하는가, 이는 물론 사회, 국가적으로 나쁜 영향

#### 해외문화회 문화영화제

해외문화회에서는 영화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문화 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는 오는 29일(월), 30일(화) 양 일간 시청각교육관 203호에서 오후 2시와 4시에 한편씩 영화를 상영하게 된다. 해외문화 회의 정주(정주·경성·경령 2)은 '영화를 통해 문화하고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중성과 흥행성, 문화장을 모두 고려하여 쉽고 재미있는 영화제를 펼친다'고 하면서 문화에 관심하고 친근해지는 학생은 소수더라도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9일 24: 폭스아이러스의 전자

44: 달콤쌉싸름한 초콜렛

27일 24: 지방위의 기쁨

44: 리치드 3

#### 월계기요제에서 우리학교 학생 대상수상

해마다 광운대에서 개최되는 월계기요제는 그간 학동준, 박민경 등의 유망인을 배출하는 등 인지도가 꽤 높은 기요제이다. 그런데 지난 21일(수)에 열린 제 20회 월계기요제에서는 우리학 교대학 백제길(상경·경령 4)이 '스물어섯'이라는 곡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스물어섯'은 지난 2월에 발표 발표 회로 발표된 광중에 하나로 백군이 군대생활을 하면서 그때의 생활과 군동기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라고 한다.

이 대회에는 그간 친구와 음악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음악에 대한 감각을 잊기 위함에서나거나 된것이라고 하면서 백군은 앞으로도 92.93년도에 같이 문예운동을 했던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작은 공연들을 꾸준히 갖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서울배움터에서는 지난 22일(목)에 동일노래한마당이 열려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

지난 주 서울배움터에서는 '더이상 침울하지 않는다' 19일(월)부터 25일(금)까지 용인백화점에서 '기레사랑 동포되기'라는 기치로 21일(수)부터 25일(금)까지 대동제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그간 진행된 각 배움터의 대동제에서 특이할 만한 행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서울배움터**

지난 주 서울배움터를 들어서면 먼저 눈에 띠는 것이 정문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선정의 거리였다. 서양식 대형 및 몇 곳에서 준비한 사진전에

는 일상전의 5.18전후 레이블로 레이블을 주제로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차운 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

이 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

# ‘성폭행 후 프락치 강요’, 조선대에서 밝혀

‘죽음’ 부르는 폭력 살인 진압, 장례기간 700여명 부상



사진은 고 유태우입니다. 하관식 장면이다.

고 유태우를 열성의 장례식의 7박8일 간의 투쟁끝에 지난 25일(금) 9시부터 광주도청앞에서 진행됐다. 본보에서는 장례기간 간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 ‘성폭행하고 프락치 활동 강요’ 밝혀

먼저 군사독재정권시절이나 있을 법한 ‘학원프락치’ 활동을 성폭행까지 하는 강요한 점이 한층더나의 의해 밝혀졌다. 한층련은 지난 10일부터 조선대에서 진행된 한층련의 ‘제2회광주사장제’와 관련, 10여명에 이르는 프락치를 적발해 수차례에 걸쳐 ‘프락치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풀어줬으나 계속되는 ‘프락치 활동’에 대해 3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자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신원이 확보된 민20세의 김모양의 경우 안기부직원, 경찰, 전경경찰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후 ‘프락치활동’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김모양은 진술을 통해 “전날생애으로 신원을 밝힐 때 시내에서 일간, 시위참가자들의 명단과 활동을 파악하는 안기부에 보고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계다가 이를 매월 수십만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장기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또한 그를 형상, 조직적으로 ‘프락치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밝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경·경찰은 학생지도부를 잡아오면 5백만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층련은 “프락치활동에 대한 증거자료로 증언 녹음테입, 진술서, 기록관계, 진술서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700여명의 부상자, 조선대는 아침병원

16일부터 시작된 장례기간에서 약 700여명의 부상자가 생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 17주기에 맞춰 도성광장에서 노력을 치르기 위해 학생들과 청계천에서 도청으로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다쳤다. 부상자 중에는 경찰이 쏜 죽격탄이나 물에 맞아 실명하기에 처해거나, 안면이 밑풀되고 뻐개기 부서지는 등의 중상자가 100여명에 이른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후기수에 의한 화상수포, 여학생들의 경우 화상증상을 보이고 있다.

## 광주만의 싸움은 아니었다

원래 16일로 정해었던 텔레사 장례식이 18일까지 차지되지 못함에 따라 정례식 상사를 위해 광주로 모였던 다른 지역 학생들은 많은 수가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우들은 광주에서 만 하는게 아니었다. 각자와 지역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24일3일 동안의 투쟁활동을 통해 알려내고 교회집회와 함께 선전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특히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연)은 19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연세대학에서 ‘고 뿌제들을 위한 장례식 사우와 부대·살인행권 김강민권 타도를 위한 사우연’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모금운동을 통해 약 3000만원 정도의 돈이 모금됐다. 이 밖에도 부산대, 경상대, 순천대, 전북대 등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장례식을 살피진 않아 따른 규모로 장례식과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회부

## ‘악법의 씨’ 마른다면 감옥도 좋다

읊은 말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읊은 말이 힘을 지니고 주장되며 위하여 그 말을 떠받쳐 주고 그 말의 울음을 살피며 하는 육체적 근거가 우리 사회 어느 구석엔가 ‘실재’ 해야 한다. 나아가 이 시대에 읊은 말은 무성화되도록 활용을 위하여 기꺼이 펼쳐발트려는 ‘음’이 터무없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얼마전, 이케다는 명지대학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되었다. 길에 전경들이 죄와 같아 있던 것은 고 경찰과 열사 6시간 때문이었다. 전경들은 정류장 양방향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모조리 검문하고 있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사람을 불러 세우고 손비를 대지도, 펴지 않아 짐승의 손을 올렸다. 얼른 내리는 경찰은 계 자못 쓰기지 않고 위압적인 기분을 뒤지는 순찰들이 ‘지극히 당당’이라는 뜻이 순조롭다.

경찰관직무유형법 제3에는 불심검문에 대한 여러 권리 규정이 있다. 우선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의 이유가 있는 자’를 경찰에게 질질 살 수 있고 그 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경찰관은 ‘질문하기 위하여’하고 경찰관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담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경찰관이 있어 날씨도 서둘러는 시

총련 출범식을 찾던 날에도 서울은 온통 검문천지였다. 군수경관 시절에는 ‘辈’ 소리라도 한번 질리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본분’ 리도 있었다. 신문을 가로 ‘과감경관 밀양’ 따위 기사가 나는 수가 있고 무슨 무슨 인권 보고서든 단골 출판물로 종이면 문제다. 우리는 지금 경복궁에 있는 그대로 고조하고 중요 한 일도 드물다는 70년대, 80년대 식의 날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불심검문 같은 불법적인 관행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로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군사경관 시대에 불법적으로 만

서 준 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사회 단신

### 한총련 학자주 위원장 볼법연행

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자주 회주진위원회(학자주) 위원장 김진영(인제대 총학생회장, 법 4군)이 광주에서 인재대학교에 가던 도중 보수수사에게 의해 불법연행되었다.

김진영 학자주위원장은 지난 16일부터 조선대에서 진행된 고 ‘제2회광주사장’에 참가하기 위해 조선대에서 미풀다가 22일 소속대학인 이화여대회의 ‘6월 대축제’에 참가하기로 가는 길에 보수수사에게 의해 불법연행되었다.

이에 부산남자여자총학생회연합(부총련)은 지난 22일(화)과 23일(수) 각자 창원과 인제대학에서 ‘학자주위원장 불법연행 규탄 및 고 투쟁을 열자 장례식 상사를 위한 부정경련 결의대회’를 가졌다.

### 전교조 지도부 장계처분 내려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소속의 현역지부장 2명에 대한 징계부분이 지난 19일(월)에 내려졌다. 이 서울시 교육도 이달 중으로 징진계를 내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19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충북지부장인 오황우(41, 충주 주민중 교사)씨와 충북지부장 김병우(41, 단양 배포중 교사)씨에게 각각 징계 3개월과 1개월의 징진계를 내렸다.

또한 서울시교육도 이날 전교조 위원장 김귀식(52, 종하고 교사)씨와 유수정(40, 중화중 교사)씨를 서울시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당시자들이 불참함에 따라 오는 28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00년 5·18 항쟁 당시 신군부에 정권탈환 음모에 맞서 광주에서 차령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제세 번째 반암을 마련해 된다. 그리고 완전한 금제로 인해 회사생명이 활약이 진다면 택시가

원전월급제도를 실시하면 일에서는 불심운전자의 고급운송수단이기보다는 공공성을 갖춘 대중운송수단에 기까운 만큼 정부의 지원방안이 실현해야 할 것이다.

김정희 기자

## “독재자도 민주경취”

요즘 부쩍 그날의 함성이 새롭습니다.

비리공화국 재벌공화국 부패공화국 거짓공화국 황태자공화국, 그리고 공삼공화국 벌써 6가지 만 이름이 불어진 6공.

‘공상당이 싫어요’란 한탄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국민이 세워온 문민정부가 국민에게 뜯친 것을 합니다.

어제는 정리해 날짜기로 저자식 밥풀까지 끊으려고,

안기부법 개악으로 운전기밀을 예비 간첩으로 몰아온다더니

요즘은 같은 겨레의 사투자는 굴주점에 ‘나풀라라’입니다.

6월민주항쟁의 참뜻은 ‘민주를 위한 향’ 그리고 단계-차 이체, 어제의 행동하는 양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강의실, 도서관 그리고 풀을 허우며 속삭이던 오늘의 청년학생들도 힘을 모았습니다.

턱 메인 가슴 확 풀으며 담담한 우리 가슴에 풀을 뱉어야 합니다.

10년 전 선배 열사의 한마음 한뜻모아 ‘진정한 민주와 자주통일’을 위해

힘들수록 힘내며 청년들이 먼저 나아갑니다.

## 6월 기원을 모집합니다.

### • 회원구분

일. 벌 20,000원 이상  
대회(회원) 10,000원 이상  
· 청소년 3,000원 이상

### • 응모개별: 예금주(한인성)

(예금) 066-21-0669-762  
(농협) 029-02-160278

## 직원봉사 손길이 필요합니다.

6월 기생 10주년사의 일손이 부족합니다. 잘 헌우려의 손길이 가는자는 일에 자원봉사자로 나와주세요.

• 자격: 학생, 노동자, 주부 등

• 자원봉사일: 주말마다 토요일

• 자원봉사 내용: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

• 자원봉사자는 봉사원으로 부임합니다.

전화(7320-610)까지세요

# 꽉 메인 가슴에 불을…

## “독재자도 민주경취”

요즘 부쩍 그날의 함성이 새롭습니다.

비리공화국 재벌공화국 부패공화국 거짓공화국 황태자공화국, 그리고 공삼공화국 벌써 6가지 만 이름이 불어진 6공.

‘공상당이 싫어요’란 한탄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국민이 세워온 문민정부가 국민에게 뜯친 것을 합니다.

어제는 정리해 날짜기로 저자식 밥풀까지 끊으려고,

안기부법 개악으로 운전기밀을 예비 간첩으로 몰아온다더니

요즘은 같은 겨레의 사투자는 굴주점에 ‘나풀라라’입니다.

6월민주항쟁의 참뜻은 ‘민주를 위한 향’ 그리고 단계-차 이체, 어제의 행동하는 양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강의실, 도서관 그리고 풀을 허우며 속삭이던 오늘의 청년학생들도 힘을 모았습니다.

턱 메인 가슴 확 풀으며 담담한 우리 가슴에 풀을 뱉어야 합니다.

10년 전 선배 열사의 한마음 한뜻모아 ‘진정한 민주와 자주통일’을 위해

힘들수록 힘내며 청년들이 먼저 나아갑니다.



전대기련 심포지움 '김영삼 정권 4년을 고찰한다' - 교육



# 실종된 YS교육, 미래는 없다

## 교육개혁안 전면 원점에서…새 틀로 다시 짜야

지난 19일(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김영삼 정권 4년을 고찰한다' 그 내 번째 교육부와 심포지움을 한국대학교연구소 소관 박기용(상명대) 교수와 함께 개최했다.

'실종된 대학의 미래를 찾습니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은 강북대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박기용 교수의 기조발제와 토론자들의 질의, 이후 자유로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에 본보는 'YS'死'년과 교육개혁④ 3차 교육 개혁안 대신 이 심포지움을 정리·발제해 싣는다.

편집자

### 교육,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김영삼 정권의 교육정책은 꿈이 아леж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폐해를 생각해보면, 첫째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정부과 기관으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정책은 정부의 이해로 혹은 국가의 정치로 전락되어 있다. 유신 때에는 반민족 강화로, 대학에서는 종교 또는 종원이라는 흥분으로 말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대학을 마음대로 주물려왔다.

둘째, OECD까지 가입했다고 따더라도 우리 나라 교육재정이 험한 없다는 것이다. GNP 5% 확보는 무언가로 한 것인가? 70년대 선진국의 기준이었다. 선진국에서는 교육환경이 원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교육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지원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 GNP 대비 12%는 되야 한다. 그러나 현재 GNP 대비 5%도 채워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셋째, 시장데의 경우 경쟁력비교 구조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공립대는 이와는 반대로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면 흥미대와 충남대는 학생회장이 대학을 파괴함으로 물고 갔다. 이전에 대학은 일간지에 광고를 안 봤는데 지금은 전면광고, 통광고 등을 막 낸다. 대학정보가 평가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쓰지 않아야 할 곳에 대학들이 이 돈을 광고 드는다.

4년 대중평으로 인한 문제 중 또 하나는 이것의 실시로 대학들의 서열화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평가는 학과별 결과를 발표하는가 미는가가 대학의 고위기이다. 30년과 발표된 대학의 실정은 어울까. 이 경쟁적 평가는 문제는 예컨대 학생식민의 위생경도의 평가 점수다. 그리고 평가는 어느 교수가 어느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는가 표기를 하는데 거의 외국학위이고 그 중 90% 이상이 미국학위다. 언제까지 외국학문을 수입할 것인가.



교育 '이미사부터 잘못됐는가, 한미대로 YS 4년간 교육은 경쟁'이다.  
교育에서 재발 시도한 것이 경쟁이다. 교육이 본래 기로서 할 것은 물론...·공생이다.

95년은 세계화의 담론이 팽배했던 해이다. 세계화였을 때 한국적 개념으로 'Sagewha'라는식으로 표현하고자 적도 있었다. 세계화라는 것에 여러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글로벌화 이전,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등의 번역으로 세계화를 '세계화는 잘못 사용되는 말이다.' 원래 세계화는 경쟁 논리가 아니라 공생·공존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 근거를 들어보자면 첫째 전세계적인 공동 문제, 둘째 전세계적인 학문제, 셋째, 전세계의 민주화문제, 그의 전세계의 여성문제, 정치발전 문제 등을 같이 풀어야나가는 것이다. 우리 경 우 '국제 경쟁력 강화', '국제사회에서 여기자' 등의 이의로 사용되고 있다.

쉽게 말해 김정원은 교육의 철학이라기 게 없다. 있다고 하면 바로 경쟁논리는 것이다. 교육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경쟁이다. 교육에서 본래 기르려야 할 것은 협동·공론·공생이다.

### 말뿐인 탈규제… 알고보면 통제강화

이번 달 4까지 포함된 교육개혁안의 특징을 보면 첫째, 정점적 지원이 없는 개혁안이므로 교육을 상문화하여 기진 지만 배우고 있는 사람 은 배우지 말아야는 논리를 담고 있어 대학 내 비인민부인부 현상을 기속화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이제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 데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것은 고교 중심의 시장경쟁의 논리를 더럽는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연,

기회 있느냐, 없느냐가 확실히 드러나고 인기 부록에 맡기 때문에 경쟁되며 만난다. 95년에 생겨난 학부제가 맡기 많던 대가 96년이다.

97년은 마지막으로 교육관계법령 정비문제가 대두된다. 학생들이 여기서 관심은 학부제는 기관에는 교육을 하우만 있었으나 이제는 교육 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하고, 초·중교육법, 고등교육법이 통합된다 것이다. 고등교육법은 6월 일시 국정에 상정되어 통과될 전망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교육환경조성위원회 설치, 교육환경조성특별법 제정문제이다. 이전 교수가 수학을 할 일이 있을 때에 소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피해에 대해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도 여기서 좋은 입지를 가질 수 있다. 교육권을 침해 당했을 때 이를 통해 풀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의를 듣는데 대형이라 못 들었 다. 60명 이상 경의를 알아달라고 학교에 요구

했을 때 이것이 학교에서 조정이 안되면 교육부 경조질위원회로 끌고 갈 수 있다. 복지가 혐련 없다거나 등록금 문제 등 문제가 나타날 때도 끌고 갈 수 있다.

97년에는 법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또 다른 것으로 교육개방문제를 들 수 있다. 국제화에서 사립학교법이 바뀌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교수, 혹은 재단이사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우려되는 바는 대학에 대한 재벌이 많이 노골화 되며 확대되고 있다는 것. 85년에 총장 직선제를 회복했는데 재벌이 들어와 총장 직선제를 없애고 총장을 지명하는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또 군소대학이 어려워지면서 재벌이 인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전국에 몇몇 키피스를 가지고 체인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대학에 경영이미지를 고려 고려 적용되는 것이다.

전대기련 대경기부 공동기자단

중이었다.

김자기 6명의 형사가 그 학생을 데려갔다. 아무런 말도 없어. 그 학생은 다음날 11시에 수술 약속이 잡혀온 상태였다.

사람을 데려온 그 형사가 그 학생을 미처 지지하고, 경례를 치르겠다는 학생들이며 실명 시켜 놓고도 만족해했다. 뭉한 딸인가. 김영삼 정권은 〈일〉



### 그들의 일그러진 반장

0...00초등학교 1학년 1반 그들의 일그러진 반장을 만난다. 학부제를 거쳤는데 이전에 다소 진보적이었던 사람들은 다 험여기 나고 관찰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구성되었는데 1995년 이후의 인은 전혀 있고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5·31 법으로 정비하겠다는 것만은 달리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학부제 실화가 시작되면서 여러 대학들이 학부제가 시작된 첫해 6월도 인제에서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대학이 실시대학 중 6%이다. 얼마 나 솔직인가. 학부제 인하란 지원 안주니까 인할 수도 없고, 학내 사정은 고려하지도 않고 토론도 없고, 유사화와 통합화이라는 축면에서 물론 설득력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생운동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전과 학교 내부에 있어 여러 그룹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 학생들은 과정으로 가지 않는다. 강의의 대형화 되는 것도 달리진 현실 중 하나이다. 강의의 인

0...크로니클자 지난 날 조선대에서 류열

서 경례식을 하려고 했으나 030(현)들이 경련병에 걸렸는지 개울은 하는 바탕에 학생들 지랄단 맞고 뛰어버렸다.

듣자나마 030(현)들이에는 아이 이갑

다고, 민아 애이 있다면 경련병의 근본원인

인 030(현)을 고쳐야 한다고. 〈경〉

0...크로니클자 새우강이 데려왔다. 그곳에는 '난 새우강의 새'자도 물었다' 품 지니 '부반장도 먹은 다'는데 반장은 내가 밟힐 이유는 없어' 그러다 그때 먹었다. 근데 증거가 없어서 못해졌다. 어울래 이에 열반은 받아들이고, 그들의 일그러진 반장을 회복시켜버렸다. 〈회〉

0...방원에 있는 환자를 연행할 시에는 먼저 그 사람의 신분을 밝히고 영장을 제시한 후 담당의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다.

한 학생이 한쪽 눈이 실명하고, 한쪽 눈마

지 실명위기에서 처해 있는 증상을 입고 입원

### '허벅지' 와 '황신혜'

# 비둘기 칠판

## 이문벌

### □ 알립니다

• 끝내주는 영어교육과 죽여주는 일일호프를 합니다.

• 5월 29일(목)

• 곳: 외대호프

원어민적 적립 기금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영어교육과 학생회〉

• 상대 1학년 모두 모교지 감시다.

• 6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

• 곳: 청평

5월 26일부터 신청서를 나누어 드리고요, 출발날짜는 이동 학생회로 있을 예정입니다.

〈상경대 학생회〉

### □ 축하합니다

• 신방과 학우(정현, 대현, 용근, 정규)들의 LG 21세기 선발대 학력을 축하합니다.

〈신방과 92 이동진, 노중훈〉

• 통일노래한미당에서 자주상을 수상하신 사회대 노래파 여러분을 정말 수고하셨다고 축하해요.

〈사회대 학생회〉

• 통일노래한미당에서 자주상을 수상한 독교과 노래파 '세사리' 여러분을 자랑스럽습니다.

〈독교과 학생회〉

• 손목시계 주인을 찾습니다.  
본관 후문 균치에서 주인의 손을 놓쳐버린 시계!  
로렌스, 금강, 경정각죽풀(한국이 펼쳐진 상태)  
뒷면에는 모래학교 교인이 새겨져 있네요.

외대문문서로 찾으려 오세요.



## 왕산글

### □ 알립니다

• 종암 풍물체 한양에서 강습회를 합니다.

• 허우 어리분! 많이 많이 오세요.

• 보파 잠구 심포증 선택가능(민요 포함)

• 때: 5월 26일(수)부터 29일(목)까지 아무때나

• 곳: 학생회관 지하 '한일'

곳: 후북관 2층 서점 앞 휴게실  
회비: 97학번 5천원, 그 이상~민원

〈남도 사랑회〉

• 아프리카어 모교방문의 날

아프리카어 및 인들이 모두 모입니다.

• 때: 6월 6일(금) 12시

• 곳: 대운동장(비오면 후생관)

〈아프리카어 학생회〉

### □ 수고하셨습니다

• 이번 대동제 준비 및 진행에 애쓰신 총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 이율리 저희가 디자인한 열쇠 고리를 구입하신 외대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드밸리〉

•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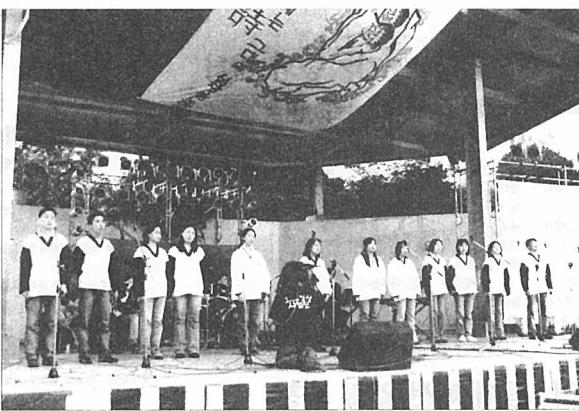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 30-4112





농민과 하나되는 자리  
시월배움터에서는 순례군 농민회와 함께 대동제 기간동안 '농학연대'를 위한 주장을 열었다. 학생회관 앞 진디밭에서 열린 이 행사는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농활뿐만 아니라 대동제 기간에도 농민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영사의 뜻을 고새  
기며  
서울배움터는 올해로 어덟번째 통일 노래 한마당을 맞이했다. 한마당에는 10팀의 노래패가 참작곡을 발표했다. 이들 노래들은 주로 혈사의 뜻을 이어온 것이다. 내용은 담고 있었으며 어떤 통일 노래 한마당에서는 '혈사의 이름으로'를 주제로 사회대학 노래패에서 자주상을 받았다.



● 대인의 하나된 '97대동제'

## 일어서는 5월 청춘의 한마당



마차가는 길이 통일되는 길  
통일을 꿈꾸는 리어카가 용인배움터에 등장했다. 사학과에서 국가 보안법 철폐를 위한 이 행사는 '통일 기관자'의 이름으로 학생들 1,000원이 북한수동포돕기 기금을 고내 대동제 기간에 운영되었다. 이 '통일 기관자'로 학생들은 대동제의 곳곳을 관광하였다.



거제사랑의 한 마을으로  
용인 배움터의 '97대동제' 폐막식 행사로 열린 '왕산 거제사랑 문화제'에는 새내기의 춤자리, 풍물, 판서리, 조국과 청춘, 자연대의 NSM들이 공연을 기쳤다. 비가 오는 중에도 많은 학생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대동제의 각종 수익금이 북한수동포돕기 기금으로 마련되어 거제사랑을 기치로 한 대동제의 의의를 기리는 한마당이었다.

### 머리가 하늘까지 날겠네

용인배움터의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금)에는 죽혹적인 '닭요 행기자' 행사가 열렸다. 안전하고 기우리는 점도 있으나 여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 행사는 대동제를 즐기던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제작: 김학영 · 험철우 기자

5 1 한 중 원 출 범 식 광 교

## 그대 가는 길이 '역사'입니다

더이상은 안됩니다.

지난해 노동법개악을 통해 아버지 고개털구고

계속 오르는 물가에 어머니 장바구니 가벼워지고

사용할끼지 들어와 농민분들 늘 같아있게 만들고

'도시 재개발' 이런 이름으로 깃끗없는 이들을 거리로 내쫓고

'못살겠다' 외치는 학생을 쇠도리깨, 쌈풀은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것 들고 갈비뼈 꼴찌, 이마 침몰, 실명시키는 공권력

그러나...

장례식에서, 광주에서 보았습니다.

장례행렬 맨 앞에서 싸우었던 시민분들을.

이제 항쟁은 시작했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여러분을 한양대로 초대합니다.

애국

한양대학교

'97년 승리의 역사, 항쟁의 순간에 그대를 초대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인족주인론  
외대학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